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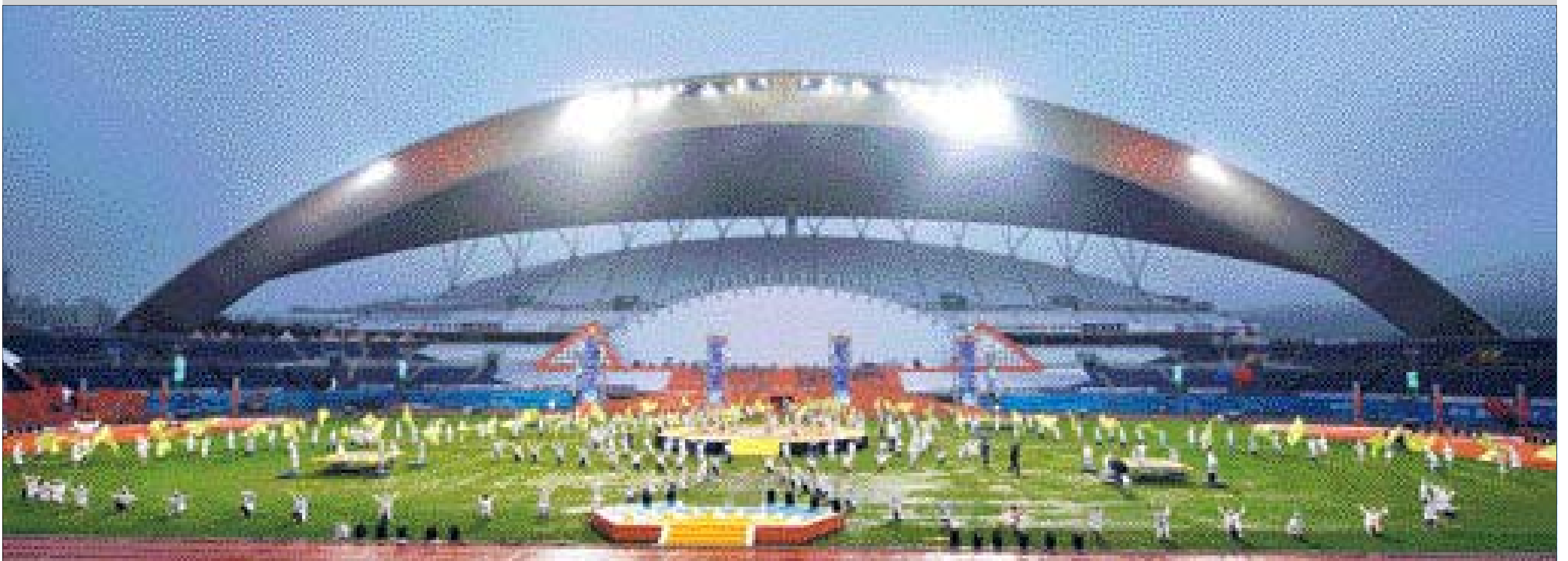
세계적 광원의 화상적인 콘텐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펄스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인터넷회원 가입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최종리허설이 7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열린 가운데 식전행사 '광주의 열정'이란 테마를 연출해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화합 축제 한마당...무등골이 달아오른다

41개 종목·2만여명 열전 7일...경기도 대회 6연패 도전
개회식 '빛의 교향곡 #무등 1187'...최첨단 시스템 가동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8일 오후 6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갖고 14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체전은 '꿈도 함께! 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라는 구호 아래 전국 16개 시·도와 15개 해외동포, 이북5도 등 모두 2만4천 518명(선수 1만8천260명)이 광주광역시 일원 66개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육상, 축구, 수영 등 41개 정식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 6연패를 노리는 경기도의 독주를 서울이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에는 노무현 대통령,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IOC위원장 내외귀빈과 16개 시·도 및 15개국 해외 동포선수단 등 2만6천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광주체전에선 특히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체전이라 올림픽 메달 기대자들이 내외장 명에 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를 대표하는 '마린보이' 박대환(경기도)은 서울대표로 출전. 자유형 100m와 200m, 혼계영 400m와 계영 400m, 800m까지 출전 가능성이 있어 다관왕 욕심도 내발만 하다.

세계적 역사 장미관(고양시청)은 경기대표로 여자 최종량급에서 가볍게 금메달을 획득 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KRA)는 광주대표로 재기의 한관승을 준비하고 있다.

카누를 제외한 40개 종목 165종별에 참가하는 광주는 1천452명(선수 1천100명, 임원 3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4위를 획득, 개최도시의 자긍심을 지키며, 전남은 41개, 종목 168종별에 1천664명(선수 1천249명, 임원 415명)이 출전. 지난 2003년부터 이어져온 한자릿수 등위를 5년 연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펼쳐질 개회식은 '빛의 교향곡(Symphony Of Light) #무등 1187'를 주제로 펼쳐진다. 교향곡 번호 '1187'은 광주와 상징인 무등산의 높이를 설정한 것이며 교향곡에는 빛에 대한 세계 공통의 지향인 연결, 상호작용, 소통, 조화의 의미를 담았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공개행사는 '빛의 터 광주(1악장), 광주의 노래, 어머니의 사랑(2악장), 다정다감(3악장), 불, 빛을 향하여(4악장)'등으로 구성됐다.

상생의 기운으로 사랑의 땅을 일구어 가던 광주가 5·18의 시련을 맞았으나 어머니의 사랑, 남도의 아름다움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 아시아를 품고 선동해가는 찬란한 빛으로 승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공개행사는 지금까지 전국체전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최첨단 시스템이 선보인다.

국내 체전 사상 최초로 본부석 건너편에 가로 88m, 세로 22m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경기장 캐노피 상공에서는 와이어액션이 펼쳐진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고싸움놀이는 디지털 고싸움으로 전환돼 월드컵경기장에서 그대로 연출되며 88인조의 국악, 양악, 오케스트라 협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제 스포츠 거물들도 광주로...

IOC 위원 5명·NOC 위원 6명

개회식 참석·체전상상 유례없는 일

8일 개막하는 광주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국제 스포츠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IOC위원들이 국제 행사가 아닌 국가 단위 행사에 단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내 전국체전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IOC위원들과 접촉을 벌여 참가통보를 받아냈다. 시는 이번 대회에 초청한 IOC위원 등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을 상대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의 면모를 과시해 오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후보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체전에는 IOC위원 5명과 NOC(국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8~9일 1박2일 동안 광주에 머문다. 이번 체전 개회식에 참석하는 IOC위원은 이번 디보스(페루)와 리파 수보오(인도네시아), 팔리톤 산체스 리바스(파나마), 티모니 춘 싱 폭(홍콩), 사미 무달랄(시리아) 등이다. 또 일본의 다케다 쓰네카즈 NOC위원장도 참석한다.

이들은 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자인비엔날레에 참석한 뒤, 오후 전국체전 개회식을 참관한다. 이어 9일에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영주체육관에서 핸드볼을 관람한 뒤 떠난다.

시는 이들이 광주에 머무는 이틀 동안 광주의 스포츠 및 산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한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 중국 광저우·선양·엔타이, 일본 샌다이, 이탈리아 토리노, 독일 라이프치히 등 9개국 13개 도시의 시장 및 대표단도 참석한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 2명 불붙은 구슬 성화대에 넣어

■ 성화 최종주자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의 최종주자는 누가 될까?

광주시는 이번 체전 성화체화에서부터 마지막 성화 점화까지 '빛고을 광주' '민주 성지 광주'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의 경기 강화도 마니산과 함께 무등산과 국립 5·18묘지에서 동시 채화한 뒤 합화(合火), 민주성지의 이미지를 강조한 성화는 8일 시청광장에서 상무 B마트-CBS-서구 문화원을 거쳐 오후 5시 30분 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하게 된다.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설 제1주자는 광주시 스포스대표로 지난

2002년 전국체전 이후 마장미술 부문에서 4연패의 금자탑을 세웠으며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단체전과 개인전 2관왕에 오르며 세계적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최준성이 된다. 체육계인민 만큼 체육계 인사가 첫 주자인 셈.

두번째 주자는 노·사회합을 상징하는 한국노총과 경제인 대표가 함께 뛰며, 3주자는 계층간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를 담은 광주시 미화원 남·여가, 4주자는 인종간의 벽을 넘는다는 뜻에서 다문화 가족 4부부가 선정됐다.

최종 4번째 주자가 지상에선 채화하면 순간 불꽃이 타오르고 점점 불꽃이 사그라 들면서 빨간 구(球)가 서서히 올라오게 된다. 이 빨간 불의 구슬을 최종점화자로 선정된 어린이 2명이 성화대에 넣게 되면 오는 14일까지 월드컵경기장을 밝히게 될 성화가 타오르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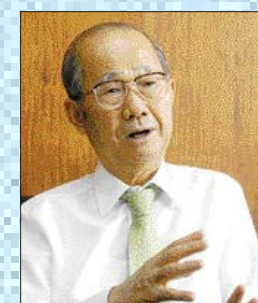
"광주 이미지 빛,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

■ 김포천 개·폐회식 연출단장

"빛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포천 광주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단장(사진)은 7일 "광주체전의 개·폐회식은 빛의 축제로 정의를 내릴수 있다. 디지털 고싸움과 빛의 탐에서 내뿜는 화려한 빛이 광주월드컵 경기장 상공을 수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출단장은 "개·폐회식의 주제인 '빛의 교향곡(Symphony Of Light) #무등 1187'은 광주의 대표 이미지인 빛, 첨단, 문화 등 중요 가치들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 연출단장은 또 "이번 개·폐회식 행사는 철저히 새로움을 추구했고, 과거 다른 체전들과는 크게 차별화를 뒀다"면서 "특히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의 이미지를 예술적 차원에서 빛으로 승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연출단장은 "개·폐회식에 동원되는 인원만도 모두 2천 14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행사"라면서 "이들이 1년여동안 준비한 땀의 결실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며 행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숙한 경기력으로 모범적인 경기 펼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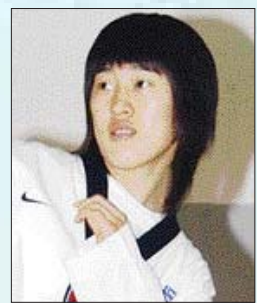
■ 선수대표 선서 김덕현·정진희

8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회식에 김덕현(22·조선대 4·왼쪽)·정진희(여·21·조선대3·오른쪽)가 선수대표로 선서를 하게 된다. 또 심판 대표로는 안재오(40·광주육상연맹) 씨가 선서를 맡았다.

김덕현은 한국육상의 떠오르는 기대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월드 톱10'에 든 한국도약의 에이스다. 지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2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김덕현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전국체전의 의미를 살릴수 있는 페어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희는 지난 87회 전국체전 금메달과 2007년 세계태권도선수



권대회 금메달, 2007 하계 U-대회 동메달에 빛나는 태권도 최강자다. 정진희는 "광주선수들이

손님을 맞는다는 차원에서 성숙한 경기력을 발휘해 모범적인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재오 심판은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